

조선조 風雲雷雨 악장 연구

조규익(숭실대 교수)

- I. 서 론
- II. 풍운뇌우 제의와 악장
- III. 풍운뇌우 악장의 텍스트 양상 및 내용
- IV. 변계량 원작의 變改 문제
- V. 결 론

국문초록

바람·구름·우레·비 등 기상·의인들은 마을마다 존재하던 성황신과 함께 산천단에 배향되어 큰 규모로 致祭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백성들의 安危나 풍요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雨順風調는 곡식의 생장과 결실에 절대적인 조건이었고, 곡식의 충실한 생장은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식량을 하늘로 여겼고, 왕도정치를 행하고자 하던 임금도 백성을 하늘로 여겼다. 사실 풍운뇌우의 신과 산천신, 성황신 등에 대한 제사는 유교이념 사회에서 淫祀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컸던 민간신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국가의 제례로 흡수하여 제도화 시키고 중앙에서 관장하려 한 것은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의 구현과 동시에 민심을 국가의 발전에 동참시키고자 한 왕조의 철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런 생각을 담으려 했던 「풍운뇌우악장」은 여타 아악악장들과 마찬가지로 고전들로부터 의미 있는 구절들을 따다가 모아놓는 수준의 제작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자는 당대의 文衡으로서 국가 제의 관련 논의의 핵심에 위치하던 변계량이었지만, 아악악장 제작의 관행이나 관습에 매여 악장의 상투성만을 심화시키는 데 그쳤던 것이다. 제사절차를 갖추고 신령에게 降福을 기원한 것이 <전폐악장>이고, 풍운뇌우의 덕을 찬양하고 강복을 기원한 것이 <초헌풍운뇌우악장>이며, 산천의 덕을 찬양하고 강복을 기원한 것이 <초헌산천악장>이다. 또한 성황신의 덕을 찬양하고 임금의 수복과 왕조영속을 기원한 것이 <초헌성황악장>이고, 예의를 갖추어 제사를 마치고 강복을 기원한 것이 <철변두악장>이다. 원래 변계량이 제작한 이 악장들은 그 후 祭次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면서 순서와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변계량이 구절들의 대부분을 각종 고전으로부터 摘句해왔고, 부분적으로는 선행 악장들의 모티프를 차용하거나 창안을 보태어 작품을 이루어냈는데, 이것이 당대 아악악장들을 제작하던 관행이었다. 변계량은 「풍운뇌우악장」과 함께 「선잠악장」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방법이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여타 아악악장들도 변계량의 제작일 가능성이 농후하나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핵심어 : 풍운뇌우, 산천신, 성황신, 변계량, 풍운뇌우악장, 아악악장, 전폐악장, 철변두악장

I. 서 론

『洪武禮制』의 규정을 바탕으로 山川 및 城隍과 함께 합사해 온¹⁾ 풍운뇌우는 嶽海瀆·先農

·先蠶·雩祀·文宣王·歷代 始祖의 제사 등과 함께 吉禮의 中祀에 속한다.²⁾ 국가가 바람·구름·우레·비 등의 신들을 성황신과 함께 산천단에 배향하고 큰 규모로 제사를 올린 것은 그것들 모두 백성들의 安危나 풍요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농경 사회에서 雨順風調는 곡식의 생장과 결실에 절대적인 조건이었고, 곡식의 충실한 생장은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民天’³⁾ 즉 식량을 하늘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곡식을 하늘로 여겼다는 것인데, 왕도정치에서 임금이 신경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이라 해도 농경에 결정적이었던 氣象관련 신들과 각종 厲疫을 막아 백성들의 안녕을 지켜주던 성황신 등에 제사를 올림으로써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통치행위의 기본이자 핵심일 수 있었다. 따라서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하던 중앙집권의 나라 조선조에 이르러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풍운뇌우·산천·성황 등의 제례를 새롭게 규정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무당들을 각종 祈祝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질병 등의 치료에 나서게 하기도 하고, 기존의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던 성황신을 국가 제사로 수용하는 등 유학자들이 淫祀로 지탄해 마지않던 각종 제의를 앞장서서 주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음사 자체의 의미나 가치여부보다는 제사 주도권의 소재에 대하여 논란을 벌인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⁴⁾ 당대 집권층이 갖고 있던 예의 개념은 각자의 階序的 직분에 걸 맞는 ‘질서의식’이었는데,⁵⁾ 이러한 음사야말로 봉건사회의 位階的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무당에게 부여된 국가적 권위를 벗겨내고 공적인 국가제사에서 무속을 배제하여 관리 중심의 유교식 제사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은 당연했다.⁶⁾ 말하자면 조선조에 들어와 정립된 ‘풍운뇌우-산천-성황’제의는 무당 혹은 종교결사가 主宰하던 음사 차원을 벗어난 유교식 국가제의로서, 중앙집권적 통치형태의 확립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풍운뇌우악장에 대한 선행연구는 박현숙의 논문이 유일하다.⁷⁾ ‘유교식 제례의 종교적 특징 / <풍운뇌우악장>의 수록문헌과 의례와의 연관성’ 등으로 구성된 이 논문은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풍운뇌우악장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미 풍운뇌우악장의 제작자로 변계량이 소개되었고,⁸⁾ 박현숙 또한 그 작자를 변계량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자해명의 필요성은 없겠으나, 텍스트의 성립이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본질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고찰은 더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문헌적 근거들을 중심으로 조선조 「풍운뇌우악장」의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⁹⁾ 변계량이 제작한 원래의 악장들과 대조하여 텍스트가 변이된 요인도 밝혀 보고자 한다.

1)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8일. 이하 조선왕조실록 기사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 참조.

2) 법제처, 『國朝五禮儀(4)』, 1982, 11쪽.

3) ‘民天’은 “王者以民爲天 而民人以食爲天”[『史記』 卷 97 「酈生陸賈列傳」 第 37 : 『欽定 四庫全書』 史部, 史類] 이란 말에서 나왔다.

4) 세종 8년 11월 7일.

5) 조규익, 『조선조 악장의 문예미학』, 민속원, 2005, 343쪽.

6) 이옥, 『조선시대의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10, 44·52·53쪽 등 참조.

7) 박현숙, 「유교식 제례의 종교적 특성과 <풍운뇌우악장> 연구」, 『문학과 종교』 제 16권 1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1.

8) 조규익, 앞의 책, 458~461쪽.

9) 본고에서는 『樂學軌範』 卷 2 「時用雅部祭樂」[『原本影印 韓國古典叢書(復元版) II. 시가류 樂學軌範』, 대제각, 1973, 108~109쪽]의 「風雲雷雨樂章」과 『國朝五禮儀(4)』의 「吉禮 雅部樂章」[28쪽]을 텍스트로 삼는다.

II. 풍운뇌우 제의와 악장

조선조 개국과 함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풍운뇌우·산천·성황 등 국가의 祀典은 고려 이래의 것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산천과 성황이 ‘고금에 널리 통행되어온 국가의 常典’임을 강조하고, 그 중 ‘나라의 祭所’라 칭한 ‘州郡 성황’의 제도와 내용을 밝힌 왕명¹⁰⁾에도 그 점은 나타난다. 『고려사』 「禮志」에 따르면 風師는 입춘 후 丑日에, 雨師 및 雷師는立夏 후 申日에 각각 따로이 제사했다 하는데,¹¹⁾ 조선에 들어와서도 상당 기간 그 전례를 따랐을 것이다. 건국 초기 개국공신들과의 맹약도 성황에 아뢰었고,¹²⁾ 境內의 명산·대천·성황·해도 등의 신들에게 封爵도 했다.¹³⁾ 신도 한양의 성황신을 옛 터에 옮겨 사당을 세우고 제사했으며,¹⁴⁾ 병중이었던 태상왕 이성계의 쾌차를 함경도 각 고을의 성황신에게 빌기도 했다.¹⁵⁾ 제례에 관한 산발적인 언급들을 거쳐 제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들이 태종대에는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즉 산천단의 제사를 『洪武禮制』에 의거하기를 왕에게 청하면서, 풍운뇌우의 신을 중앙에, 산천의 신을 왼쪽에, 성황의 신을 오른쪽에 각각 설치하고 제사해왔는데, ‘지금[태종 당시 : 인용자 주]은 풍운뇌우의 신을 버리고 산천에만 제사하여 의리에 맞지 않으니 풍운뇌우와 성황의 신에게도 아울러 제사하게 해달라’는 청을 올린 것이다.¹⁶⁾ 예조의 啓文으로 미루어 얼핏 당시까지 풍운뇌우와 성황의 신에게는 제사를 올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제관을 파견하여 올리는 제사의 경우 산천신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음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이와 함께 신주의 배치나 제사의 절차 등을 『홍무예제』에 의거하게 해달라고 함으로써 이 시기에 비로소 이 분야의 제례가 문헌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풍운뇌우의 제사를 中祀로 올리고, 산천·성황과 合祀하게 했으며,¹⁷⁾ 이와 아울러 성황지신의 작호를 革去하라는 태조 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앞 시대까지의 음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바로 잡았고,¹⁸⁾ 고금 조정의 禮制를 참고하여 風雲雷雨祈雨儀를 상정하는 등 해당 사전을 정비하기도 했다.¹⁹⁾

세종대에 들어와 풍운뇌우단을 바로잡는 방안에 관한 박연의 논의가 제출됨으로써 결국 풍운뇌우 제의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조선조의 모든 제사예절은 王侯의 제도를 써왔는데, 『홍무예제』를 채용함으로써 州縣의 예법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박연이 제기한 1차적인 문제였다. 특히 여러 位를 하나의 신주로 합하고 한 그릇의 제수를 흠향하도록 함으로써 侮慢하고 불경함이 심하다고 했다. 천신인 풍·운·뇌·우를 같은 단에 제사하고 산천과 성황의 신을 천신과 더불어 모두 남향하게 하여 한 줄로 신위를 마련하고 섞어 제사하니 매우 褻慢하다는 것이다. 특히 風師·雲師·雷師·雨師에서 師자를 빼고 다만 풍·운·뇌·우 4자를 한 木牌에 써서 신주로 삼고 다만 한 위의 饌需만을 진설하고 네 位의 天神으로 하

10) 태조 1년 8월 11일. “다만 某州 某郡의 신이라 일컫고, 位版을 설치하여, 각기 그 고을 수령에게 매양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奠物·祭器·酌獻의 예는 한 결 같이 조정의 禮制에 의거하도록 하라.” 참조.

11) 김해영,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 집문당, 2003, 186쪽.

12) 태조 1년 9월 28일.

13) 태조 2년 1월 21일.

14) 태종 6년 6월 5일.

15) 태종 8년 4월 28일.

16) 태종 11년 5월 8일.

17) 태종 13년 4월 13일.

18) 태종 13년 6월 8일.

19) 태종 15년 3월 3일.

여금 한 그릇의 음식을 흠향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분분한 논의를 거쳐 결국 許稠와 黃禧 등의 절충적 견해를 채택하게 되었으며,²⁰⁾ 풍운뇌우 제사의 규례와, 祈雨儀 및 報祀제도에 대한 일체의 규례 등을 의정부에서 마련했고,²¹⁾ 厲祭儀註를 예조에서 지어 바침으로써,²²⁾ 풍운뇌우 및 산천·성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의주는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사실 조선조 건국 이후 풍운뇌우 제례를 수용하면서 대두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유교의 이념과 事神행위의 충돌을 여하히 막을 것인가’였고, 그 과정에서의 큰 걸림돌은 음사의 존재였다. 사실 風伯·雨師 등을 섬긴 것은 이미 삼국시대 초부터 일반화 되어온 일인데,²³⁾ 이런 제례행위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음사의 논란이 일어난 것은 조선조에 들어온 이후부터였다. ‘국무당을 정파해야 한다’는 요지로 사간원이 올린 상소²⁴⁾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천자는 천지에, 제후는 산천에, 대부는 五祀에, 사서인은 祖考에 각각 제사함으로써 각각의 등급을 지켜야 한다는 것,²⁵⁾ 음사를 금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구습에 젖은 백성들이 예와 분수를 어겨 산천과 성황에 제사하고 때 지어 술 마시고 돈을 허비하며 가산을 탕진한다는 것, 각종 폐단들은 국가가 국무당을 세우고 명산에 무당을 보내 제사지내는 데서 유래되었으니 국무당을 정파하고 朝臣을 보내 예법대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백성들의耳目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상소의 골자다. 특히 ‘음사의 성행이 盛大한 정치에 累가 된다’는 지적이 상소에 들어있는 점은 아주 흥미롭다. 이 말 속에는 ‘음사’와 ‘성대한 정치’가 대립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성대한 정치’란 ‘영속되어야 할 예악정치 혹은 三代之治로 대변되던 왕도정치’를 말하고, 조선조 건국 주체세력이 표방한 정치의 지향점이기도 했다.²⁶⁾

풍운뇌우에 대한 제사는 풍사·우사·뇌사를 각기 별도로 제사하던 고려 이래의 관습을 『홍무예제』에 의거 ‘풍운뇌우의 신’으로 합칭하여 산천신, 성황신과 더불어 습제하게 되면서 제사 시일도 『홍무예제』의 규정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²⁷⁾ 이런 과정을 거쳐 성종 5년 姜希孟이 왕명으로 撰定한 『國朝五禮儀』의 「祀風雲雷雨儀」는 바로 『홍무예제』의 해당 부분을 바탕으로 만든 祀典이고, 그에 따른 음악이나 악장이 바로 『악학궤범』(권2) 「成宗朝時用雅部祭樂」의 ‘天神 風雲雷雨’의 내용인 것이다. 우선 『國朝五禮儀』 「祀風雲雷雨儀」의 祭次에서 음악이나 악장을 추정해낼 만한 부분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세종 20년 12월 19일. ‘산천단 제례는 원래 時王의 제도이니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렵다’, ‘홍무예제의 의주에 따르면, 풍운뇌우에 폐백이 넷이고 산천에는 폐백이 둘이라 했고, 爵의 수는 말하지 않았는데, 폐백의 수로써 작의 수를 포괄한 것 같다’, ‘풍운뇌우 제사에 단지 하나의 잔을 쓰고 산천에도 하나의 잔을 쓰는 것이 편치 않으니 작의 수는 마땅히 폐백 수에 의해 매 신마다 각각 한 개의 잔을 쓰게 하고, 나머지 절차는 모두 홍무예제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등이 허조와 황희의 주장이었고, 왕이 그들의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홍무예제』의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21) 세종 21년 1월 16일.

22) 세종 22년 6월 29일.

23) “立春 뒤 丑日에 犬首谷門에서 풍백에게 제사하고, 입하 뒤 申日에 卓渚에서 우사에게 제사하였다.”[『국역 증보문헌비고』 제61권 「예고」 8, 제단 1, 풍운뇌우, 신라 ; www.krpia.co.kr] 참조.

24) 앞 주 4) 참조.

25) 周代부터 명문화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규정이다. “天子祭天地祭四方祭山川祭五祀歲徧 諸侯方祀 祭山川祭五祀歲徧 大夫祭五祀歲徧 士祭其先 凡祭有其廢之 莫敢舉也 有其舉之 莫敢廢也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經部, 禮類, 禮記之屬, 禮記大全, 卷二』] 참조.

26) 조규익, 앞의 책, 63쪽.

27) 김해영, 앞의 책, 187쪽.

- ① 집례가 “전폐례를 행한다”고 한다/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하고 홀을 제복의 띠에 꽂아 준다/초헌관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마치면 홀을 잡히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 남쪽 뜰로 올라간다/登歌는 肅安의 악을 연주하고 烈文의 춤을 추게 한다.
- ② 집례가 “초헌례를 행한다”고 한다/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뜰로 올라가 尊所로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登歌는 壽安의 악을 연주하고 烈文의 춤을 추게 한다.
- ③ 집례가 “아헌례를 행한다”고 한다/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제복의 띠에 꽂아준다/아헌관이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뒤, 홀을 잡아 주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서 동쪽 뜰로 올라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軒架는 壽安의 악을 연주하고 昭武의 춤을 추게 한다.
- ④ 집례가 “중헌례를 행한다”고 한다/알자는 중헌관을 인도하여 行禮함을 모두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 ⑤ 집례가 “籩豆를 칠수한다”고 한다/등가는 擁安의 악을 연주한다.
- ⑥ 집례가 “望燎한다”고 한다/大祝이 준비를 끝내면 집례가 “태워 버린다”고 한다/燎柴가 절반쯤 타면 알자는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禮畢하였음을 사된다.²⁸⁾

풍운뇌우의 제사는 전폐에서 望燎까지 크게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악장과 관련된 부분은 ①, ②, ⑤ 등 세 부분이다. 즉 헌가에는 악장이 없고, 등가가 연주하는 절차인 전폐와 초헌·철변두 등에만 악장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차 중의 음악과 악장은 『악학궤범』(권 2) 「成宗朝 時用雅部祭樂」의 ‘천신 풍운뇌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전폐 숙안지악과 악장, 초헌 수안지악과 악장[풍운뇌우 악장/산천 악장/성황 악장], 철변두 웅안지악과 악장’ 등이 그것들이다.

Ⅲ. 풍운뇌우 악장의 텍스트 양상 및 내용

1. 제사절차를 갖추고 신령에게 降福을 기원함 : <전폐악장>

城南有壇 祀事孔明 성남에 제단 있어 제사 절차 매우 분명하고
俎豆既陳 黍稷其馨 조두를 늘어놓으니 서적이 향기롭도다
樂具入奏 磬管鏘鏘 풍류를 갖추어 연주하니 경쇠와 피리 소리가 아름답고
惟恭奉幣 神其降康 공손히 폐백을 받드오니 신령께서는 강녕을 내려주소서

제1행 첫 구²⁹⁾[城南有壇]는 도성 남쪽 즉 숭례문 밖에 세워졌던 산천단을 말한다. 산천단을 중심으로 왼쪽에 성황단이, 오른쪽에 풍운뇌우단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단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특별한 문헌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1행 둘째 구는 『시』 「소아」 <楚茨> 6장 중 둘째 장³⁰⁾의 한 구절로서, ‘가을제사와 겨울제사를 지내면서 희생의 가죽

28) 『국조오례의 1』, 191~200쪽 참조.

29) 논의의 대상이 악장인 만큼 ‘行·句’보다는 ‘章·句’란 용어가 타당하다. 그러나 『시』에서 인용하는 작품들의 경우 대부분 몇 개의 행들이 모여 하나의 장을 구성하므로, 여기서 장이란 용어로 행을 대신하게 할 수는 없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그냥 ‘行·句’의 명칭을 쓰기로 한다.

30) 『原本集註 詩傳(全)』, 명문당, 1978, 327쪽의 “濟濟跄跄 絜爾牛羊 以往烝嘗 或剝或亨 或肆或將 祝祭于祊 祀事孔明…” 참조.

을 벗기거나 고기를 삶아 진설하고 올리며 축관이 사당 안에서 제사하니, 제사하는 일이 심히 갖추어져서 선조가 크게 강림하시고 神保가 흠향하신다'[2장의 요지]는 내용이다.³¹⁾ 이 구절은 조선조 「社稷樂章」의 <철변두악장>과 「先蠶樂章」의 <철변두악장>에 모두 들어 있는데, 대표적인 아악악장인 「풍운뇌우악장」의 <전폐악장> 또한 이것들과 함께 이 구절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아악악장들의 경우 이 구절은 <철변두악장>에 들어 있으며, 변두를 물리는 과정에서 '제사가 성대하고 밝았다'[즉 '제사가 크게 갖추어졌다']고 선언한 내용으로서 제사의 일반적인 절차 '辭神' 다음의 '告利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³²⁾ 「풍운뇌우악장」의 경우 <전폐악장>에 들어 있는 점이 이채롭다. 그러나 '제사가 성대하고 밝다'는 것은 마무리 뿐 아니라 시작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부분에 끼워 넣어도 무방한 표현이다.

제2행 첫 구[俎豆既陳]는 『禮記集說』 「曾子問 第七」에 나오는 구절이다. 제후가 사직에 제사지낼 때 제기를 이미 진설해 놓은 상태에서 천자가 죽었거나 왕후의 상을 당한 경우 임금이 죽었거나 부인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증자가 물었고, 공자는 이에 대하여 제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대답한 데서 유래된 문구인데,³³⁾ 흔히 제사에 인용되어온 표현이다. 즉 증자의 말 가운데 한 구절을 빌어 이미 제사 지낼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을 표현한 말이다. 둘째 구[黍稷其馨]의 연원은 『書』 「周書」 제23장의 '君陳'에 등장하는 '黍稷非馨'에서 찾을 수 있다. 주나라 성왕이 주공의 사망 후 그를 대신한 군진에게 여러 가지를 훈계했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이 바로 이 말이었다.³⁴⁾ 즉 '지극한 다스림은 신명을 감응시키는데, 기장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밝은 덕만이 향기롭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장으로 맛있게 빛은 제수보다는 밝은 덕으로 행하는 지극한 다스림이 신명을 감응시킨다는 것이니, 제사보다는 실제 정치로 신명을 감동시키라는 것이 그 본뜻이다. 이 말들[黍稷非馨/明德惟馨]의 구조와 뜻을 원용하고, 제사 악장의 용도로 만든 것이 바로 '黍稷其馨'이다.

제3행 첫 구[樂具入奏]는 『시』 「소아」 <초자> 6장의 첫 구를 그대로 가져 온 것으로, 앞쪽에 사당이 있어 신을 받들고 뒤에는 正寢이 있어 의관을 보관하게 하여 사당에서 제사하고 정침에서 잔치하는 것이 당시의 제도였는데, 이 때 '잔치를 위해 제사 때의 악기를 모두 정침으로 들여와 연주한 것'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다.³⁵⁾ 둘째 구[磬管鏘鏘]는 『시』 「주송」 <執競>의 제3장[鍾鼓喤喤/磬筦將將/降福穰穰 : 종과 북이 조화롭게 울리며/경쇠와 피리가 쟁쟁하게 울리니/복 내림이 많고도 많도다]³⁶⁾의 '磬筦將將'에서 연유되었는데, 조선조 풍운뇌우의 <전폐악장>은 『漢書』 「禮樂志」의 표기인 '磬管鏘鏘'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³⁷⁾

제4행의 첫 구[惟恭奉幣]는 『書』 「周書」(12)·「召誥32」의 끝 부분[拜手稽首 曰 予小臣 敢以王之讎民百君子 越友民 保受王威命明德 王末有成命 王亦顯 我非敢勤 惟恭奉幣 用供王能祈天永命]에 들어 있는 한 구절을 가져 온 것으로 제사절차를 언급한 내용이다. '공손히 폐백을 받든다'는 말은 '임금으로 하여금 하늘에 영원한 명을 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에

31) 조규익, 「조선조 社稷樂章의 성격과 의미」, 『語文研究』 제39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202쪽.

32) 조규익, 「조선조 先蠶樂章 연구」, 『韓國詩歌研究』 32, 한국시가학회, 2012, 241쪽.

33) 『禮記(亨)』 [『禮記集說大全』, 학민문화사 영인본], 205쪽의 “曾子問曰 諸侯之祭社稷 俎豆既陳 聞天子崩后之喪 君薨 夫人之喪 如之何 孔子曰 廢” 참조.

34)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書類, 書傳 卷十六의 “我聞曰 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馨 明德惟馨” 참조.

35) 『原本集註 詩傳(全)』, 330쪽의 “凡廟之制 前廟以奉神 後寢藏以衣冠 祭於廟而燕於寢 故於此將燕 而祭時之樂皆入奏於寢也” 참조.

36) 같은 책, 493쪽.

37) 『文淵閣四庫全書』, 史部, 正史類, 前漢書 卷二十二.

게’ 폐백을 드린다는 것이다. 직접 신에게 바치지 않는다고 해도 임금이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니, 제사와 직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³⁸⁾ 조선조 사직제의 <전폐악장> 4행 첫 구로 쓰인 바 있는 이 구절이 풍운뇌우 <전폐악장> 4행의 첫 구로도 쓰였다는 것은 당대 아악악장들이 내용이나 목적의식의 면에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둘째 구[神其降康]는 초헌 <성황악장> 제3행의 첫 구로도 쓰였다는 점에서 이 내용이 아악악장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악장 내에서 같은 구절이 중복 사용된 점은 그 구절이 해당 제사의 핵심 모티프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사의 대상인 신령에게 ‘강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야말로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이미 송나라의 「紹興以後蜡祭四十首」 중 제23 악장인 <后稷位酌獻穆安>, 원나라의 「大德九年以後定擬親祀樂章」 중 <奠玉幣奏欽成之曲> 및 「元圜丘樂章」 중 <奠玉幣奏欽成之曲> 등에도 똑 같이 포함되어 있고, 조선조 선잠 <전폐악장>은 『명집례』나 『오례통고』의 그것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큰데,³⁹⁾ 풍운뇌우의 <전폐악장> 역시 그런 수용의 계통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제단의 마련과 제사절차의 완비’를 첫머리에 드러내고 신령에게 강녕을 내려달라는 기원을 마무리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의미상으로도 형태상으로도 <전폐악장>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풍운뇌우의 덕을 찬양하고 강복을 기원함 : <초헌풍운뇌우악장>

天施地承 品物以生 하늘은 베풀고 땅은 이어받아 만물이 생겼고
 風雲雷雨 品物流形 풍운과 뇌우로 인하여 만물이 형체를 이루었도다
 無失其時 澤我蒸民 그 때를 잃지 않고, 우리 백성에게 혜택을 주소서
 以享以祀 福祿來臻 제향을 드리오니, 복록이 이르게 하소서

1행 첫 구[天施地承]는 『역』 「風雷益」卦의 단사[天施地生 其益无方]에서 핵심 의미를 따온 경우다. ‘生’을 ‘承’으로 바꾸었으나, 땅이 만물을 낳는 이치는 하늘의 베풀음을 이어받아 펼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 상통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풍운뇌우의 덕’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風雷益」卦라고 할 수 있다. 패상[䷩]으로 보면 손[☵]이 위에 있고, 진[☳]이 아래에 있어, 우레와 바람 두 가지는 서로 더하는 것으로 본다. 즉 바람이 매우면 우레가 빠르고 우레가 격하면 바람이 노하여 둘이 서로 보태서 ‘익패’가 되니, 이것은 패상으로써 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⁴⁰⁾ 바람에 구름이 따르고, 우레에 비가 따름을 생각하면 바람과 우레는 우순풍조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풍운뇌우의 순조로운 활동으로 이어져 결국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을 이 악장에서는 말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구[品物以生]는 제2행 둘째 구[品物流形]과 같은 의미범주 안의 개념들이다. ‘우주의 온갖 사물이 그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이 전자의 뜻이고, ‘우주의 온갖 사물이 그로 인해 형체를 이룬다’는 것이 후자의 뜻이다. 그 경우 원인적 요소나 작용 인자로서의 ‘그’는 무엇인가? 바로 ‘하늘이 베풀고 땅은 낳는[이어받는] 것’ 즉 풍운뇌우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품물유행’은 『易』 「重天乾」괘[䷀]의 단사[雲行雨施 品物流形]에 들어 있는 말로서 ‘구름이 행하고 비가 베풀어져 만물이 형상을 흘린다’는 뜻이니, 풍운뇌우의 작용 즉 ‘雨

38) 조규익, 「조선조 社稷樂章의 성격과 의미」, 193~194쪽.

39) 조규익, 「조선조 先蠶樂章 연구」, 235쪽.

40) 김석진, 『周易傳義大全譯解(下)』, 대유학당, 2000, 951쪽 참조.

順風調를 통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짐과 함께 ‘형통함이니 하늘의 도가 운행하여 만물을 낳고 기름’⁴¹⁾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重天乾」괘의 ‘품물유행’은 「重地坤」[䷁]의 ‘品物咸亨’ 즉 ‘坤의 두터움이 물건을 실음은 덕의 한없음에 합하며 포용하고 너그러우며 빛나고 커서 만물이 다 형통하다’는 뜻이 되어 양자는 ‘天德:地德’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품물이생/품물유행’은 <풍운뇌우악장>에서 天神의 功能을 나타내는 핵심적 어구들인 셈이다. 자연스럽게 제2행 첫 구[風雲雷雨]는 ‘雲行雨施’와 동의어가 되고, 따라서 제2행은 『역』 「중천건」괘의 단사[雲行雨施 品物流形]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면 된다.

제3행의 첫 구[無失其時]는 『孟子』 「盡心章句(上)」 22의 ‘西伯善養老’에 나오는 말로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요체가 ‘때를 놓치지 않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즉 “어미 닭 다섯 마리와 어미 돼지 두 마리를 키우며 ‘그 때를 놓치지 않으면’ 노인 된 자가 고기 없이 밥 먹는 경우가 없을 것”⁴²⁾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니, 하늘이 때맞추어 비·바람을 일으켜 줌으로써 백성들을 윤택하게 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직악장」·「선농악장」·「선잠악장」 등이 「풍운뇌우악장」과 함께 ‘풍요에 대한 기원’을 주제의식의 큰 부분으로 공유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며, 그런 주제의식이나 의도가 자연스럽게 둘째 구[澤我蒸民]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書』 「益稷」의 “蒸民乃粒”에서 연유되었다.⁴³⁾ 즉 ‘우리 백성들이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이 누려야 할 혜택의 첫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4장의 첫 구[以享以祀]는 『시』 「소아」 <초자> 1장과 「주송」 <潛> 등에 나오는 구절[以饗(享)以祀]로서 ‘음식을 장만하여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다. 즉 전자에는 “술과 밥을 마련하여/올리고 제사하며/편안히 모시고 권하여/큰 복을 크게 한다[以爲酒食/以饗以祀/以妥以侑/以介景福]”는 내용이,⁴⁴⁾ 후자에는 “아름답도다, 칠수와 저수에/고기갓에 많은 고기 있으니/전어와 상어가 있으며/피라미와 날치, 메기와 잉어 있으니/이것을 올리고 제사하여/큰 복을 크게 하리로다[猗與漆沮/潛有多魚/有鱣有鮪/鰪鰾鰻鯉/以享以祀/以介景福]”는 내용이 나오는데,⁴⁵⁾ 이런 부분들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다.

3. 산천의 덕을 찬양하고 강복을 기원함 : <초헌산천악장>

有山斯峻 維邦之鎮 산이 높아 나라의 진수가 되고
 有水斯瀾 維邦之紀 강물이 가득하여 나라의 기틀이 되었도다
 產祥降瑞 介以繁祉 상서를 만들고 내리시어 저를 도우시되 큰 복으로써 하시고
 洋洋來格 歆我明祀 성대하게 내려오시어 저의 밝은 제사를 흠향하소서

제1행과 2행은 신령이 깃든 산천 즉 산과 물이 나라에 갖는 관계를 제시한 부분으로 특별한 전거를 찾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은 특히 國都 한양의 풍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有山斯峻’의 산은 북한산을 ‘有水斯瀾’의 물은 한강을 각각 지칭함으로써 나라를 鎮守하고 기틀을 이루는 산천의 본질적 의미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산천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

41) 같은 책 (上), 178쪽의 “雲行雨施品物流形 言亨也 天道運行 生育萬物也” 참조.

42) 임동석 역주, 『四書集註諺解 孟子』, 학고방, 2004, 619쪽.

43) 『原本備旨 書傳集註』, 朝鮮圖書株式會社 藏板, 163쪽의 “暨稷 播奏庶艱食鮮食 懋遷有無 化居 蒸民乃粒 萬邦作乂” 참조.

44) 『原本集註 詩傳(全)』, 326쪽.

45) 같은 책, 498~499쪽.

는 제1·제2행의 전제가 ‘상서를 만들고 내리신다’고 본 제3행의 첫 구[産祥降瑞]와 둘째 구[介以繁祉]의 기원으로 이어진다. 제3행 첫째 구의 경우 특별한 전거를 찾을 수 없으나, 둘째 구는 『시』 「주송」 <離>의 16구 “나를 편안히 하되 미수로써 하며/ 나를 돕되 큰 복으로써 하며/이미 열고를 높이 모시고/또한 태사를 높이게 하셨도다[綏我眉壽 介以繁祉 既右烈考 亦右文母]”⁴⁶⁾에서 따온 구절이다. 이 구절은 염제 신농씨를 主神으로 모시던 「선농악장」의 <초헌정위악장>에도 똑같이 들어 있는데,⁴⁷⁾ 당시 아악악장들이 부분적으로 典據들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4행의 경우 첫 구[洋洋來格]와 관련되는 전거는 없으나 둘째 구[歆我明祀]의 ‘明祀’는 분명한 전거를 갖는 말이다. 『春秋左傳』 「僖公 21年」에 나오는 “崇明祀 保小寡 周禮也”⁴⁸⁾가 그것인데, 여기서 ‘명사’는 ‘神明에 대한 제사’ 즉 ‘매우 중대한 제사’의 뜻을 갖고 있는 말이다. 말하자면 산천신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를 표하고 자신의 제사를 흠향해 줄 것을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황신의 덕을 찬양하고 임금의 수복과 왕조영속을 기원함 : <초헌성황악장>

維此城隍 襟抱于國	이 성황님이 나라를 품에 안았으니
薦之時祀 既齊既稷	제사 올리기를 이미 바르고 이미 빨리 하였도다
神其降康 俾我壽臧	신은 강녕을 내리시어, 우리를 장수하고 좋게 하여 주시고
宗社綿綿 彌億萬年	나라가 먼먼하여 억만년에 이르게 하소서

제1행의 두 구절과 제2행의 첫 구는 제사의 대상인 성황신을 제시하고 제사 올린 일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부분으로 고전이나 선행 악장들로부터 따온 것들이기보다는 악장 담당자의 창안으로 볼 수 있다. 또 ‘襟抱于國’이란 표현에 얼마간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성황신과 국가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제2행의 둘째 구[既齊既稷]에 이르러 비로소 선행 문헌들로부터의 차용이 확인된다. 이 구절은 『시』 「소아」 <초자> 4장의 “네게 백 가지 복을 내리되/기약한 시기와 같게 하고 법식과 같게 하며/이미 가지런히 하고 이미 재빨리 하며/이미 바르게 하고 이미 삼갔으므로/길이 네게 지극함을 주되/이에 만억으로 하노라 하시니라[卜爾百福/如幾如式/既齊既稷/既匡既勅/永錫爾極/時萬時億]”⁴⁹⁾에서 가져 온 것으로 제사 절차를 整齊하고 시기에 어그러지지 않게 집행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3행의 첫 구[神其降康]는 <전폐악장>의 마지막 구에 이어 똑 같이 한 번 더 나온 구절이다. 즉 동일한 제례 안의 두 악장에서 중복 사용되었다는 점은 제사의 대상인 신령에게 ‘강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구절이 해당 제례의 핵심 모티프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⁵⁰⁾ 둘째 구[俾我壽臧]는 『시』 「노송」 <閼宮>의 4장에서 나온 구절이다. 4장의 후반부인 “너로 하여금 치성하고 변창하게 하며/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좋게 하여/저 동방을 보전하여/노나라를 변함없이 하시며/이지러지거나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며/진동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으며/삼수로 벼를 지어/산마루와 같고 구릉과 같으소서[俾

46) 『原本集註 詩傳(全)』, 500쪽.

47) 조규익, 「先農祭儀 악장의 텍스트 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160, 국어국문학회, 2012, 336~337쪽.

48)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春秋類, 春秋左傳注疏 卷十三.

49) 『原本集註 詩傳(全)』, 328쪽.

50) 본 논문 3장 1절 참조.

爾熾而昌/俾爾壽而臧/保彼東方/魯邦是常/不虧不崩/不震不騰/三壽作朋/如岡如陵]”⁵¹⁾에서 ‘俾爾熾而昌/俾爾壽而臧’은 신에 대한 기원의 핵심이다. ‘俾爾壽而臧’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3행의 둘째 구인 ‘俾我壽臧’이다. 다만 행위나 결과의 방향만 ‘너에서 나로’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비궁>의 ‘熾昌’과 ‘壽臧’이 모두 당시 노나라에서 제사를 받들고 복을 얻은 일을 追述한 것인데, 僖公의 재위가 오래 되어 장수와 복록의 경사를 누린 일에 바탕을 둔 내용임⁵²⁾을 감안하면, 祭主인 왕의 입장에서 성황신에게 자신의 장수와 복록을 기원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왕조의 영속까지 기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제4행의 첫 구[宗社綿綿]는 『시』 「大雅」 <綿> 1장의 ‘綿綿瓜瓞’에서 모티프를 따 온 구절이다. 즉 ‘면면히 이어진 오이덩굴’이란 “오이덩굴이 먼저는 작고 뒤에는 커짐을 말해서 주나라 사람이 처음 漆과 沮의 가에 살다가 古公 때에 窯竈와 土室의 가운데에 거처하여 그나라가 아주 작았으나 문왕대에 이르러 커진 것을 비유한 말”⁵³⁾이다. <綿>의 ‘瓜瓞’ 대신 ‘宗社’를 넣었는데, 조선왕조 영속의 소망을 표현하는 말이며, 『시』에 표현된 원래의 그런 의미나 모티프가 <초헌 성황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⁵⁴⁾ 둘째 구[彌億萬年]는 시간의 과장적 표현으로서 예로부터 많이 써오던 관용구다. 그 가운데 특별히 회자되어 온 표현은 朱子の 『易五贊』에 등장한다. 공자가 『역』의 『傳』을 지어 『十翼』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진시황의 焚書에도 타지 않다가 송대에 와서 밝혀졌다고 했다. 邵康節이 伏羲氏의 畫을 전하고 程子是 『역』을 演繹함으로써 象이 배풀어지고 數가 벌여졌으며, 말을 다해 설명을 잘 하고 이치가 얻어졌으니 ‘彌億萬年’ 즉 아득한 억만년에 길이 몇몇한 법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자는 탄식한 것이다.⁵⁵⁾ 거기서 사용된 상투적 표현으로서의 ‘미억만년’이 <초헌 성황악장>의 시간의식으로 차용되어 온 것이다. 말하자면 ‘미억만년토록’ 왕조가 영속시켜 주기를 성황신령에게 기원하는 것으로 이 악장을 마무리한 것이다.

5. 예의를 갖추어 제사를 마치고 강복을 기원함 : <철변두악장>

禮儀既備 罄無不宜 예의가 이미 갖추어졌으니, 다 마땅치 않음이 없도다
有踐籩豆 載徹不遲 변두를 진설하고, 곧 철변을 더디 하지 않도다
孔惠且時 神具醉飽 제사를 매우 공손히 하고 또 제 때에 하니, 신이 모두 취하고 배불렀도다
如期如式 維我純嘏 기약한 때에 맞추어 법식대로 하였으니, 제게 큰 복을 내려주소서

제1행의 첫 구[禮儀既備]는 이른바 聖經賢傳上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다. 그러나 이어구가 조선조 先蠶祭 <전폐악장>의 제2행 둘째 구로 사용되어 ‘신령에게 드릴 폐백과 제사절차의 완정함’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⁵⁶⁾ 풍운뇌우 <철변두 악장>에 수용된 것이 얼핏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폐’나 ‘철변두’ 모두 제사준비나 시행의 完

51) 『原本集註 詩傳(全)』, 524쪽.

52)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詩類, 虞東學詩 卷十二의 “閔宮篇熾昌壽臧云云 並是追述當年承祭獲福之事 亦因僖公在位日久 壽考弗祿之慶也” 참조.

53) 『原本集註 詩傳(全)』, 383쪽.

54) 조규익, 『조선조 악장의 문예미학』, 230쪽.

55)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易類, 原本周易本義 卷末上의 “孔聖贊之 是爲十翼 遭秦不燼 及宋而明 邵傳義畫 程演周經 象陳數列 言盡理得 彌億萬年 永著常式” 참조.

56) 조규익, 『조선조 先蠶樂章 연구』, 234쪽.

整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두 악장들이 이 어구를 공유하게 된 것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구[罄無不宜]는 『시』 「소아」 <天保> 2장 “하늘이 그대를 保定하사/그대를 모두 좋게 하시도다/다 마땅치 않음이 없어/하늘의 온갖 복을 받으셨거늘/그대에게 장구한 복을 내리시되/날마다 부족하게 여기시도다[天保定爾/俾爾戩穀/罄無不宜/受天百祿/降爾遐福/維日不足]”⁵⁷⁾로부터 따온 구절이다. 이 구절의 원래뜻은 ‘하늘이 그대를 편안하게 하고 좋게 하시는 것들 모두 마땅치 않음이 없다’는 것이지만, 풍운뇌우의 <철변두악장>에 와서 ‘신령에 대한 제사의식 모두 마땅치 않음이 없다’는 뜻으로 전용되었다. 그 ‘마땅치 않음이 없다’는 뜻을 제2·3행에서 부연했고, 그를 바탕으로 신에게 강복해주기를 기원한 것이 마지막 행의 내용인 것이다.

‘벌여놓은 제기가 질서정연하다’는 뜻을 지닌 제2행의 첫 구[有踐籩豆⁵⁸⁾]는 『시』 「邠風」 <伐柯> 제2장[伐柯伐柯/匪斧不克/取妻如何/匪媒不得//伐柯伐柯/其則不遠/我邁之子/籩豆有踐]⁵⁹⁾의 마지막 구로 등장한 이래 많은 악장이나 기록들에서 따다 써온 구절이다. 『宋史樂志紹興先農十一首』의 <徹豆歆安>, 『樂志皇后廟十五首』의 <淑德皇后室嘉安>, 『文獻通考仁宗時制四立土王日祭五方帝』의 <送神高安>, 원나라 「皇廟祭祀禮樂樂章」의 <徹豆奏口成之曲南呂宮>, 『玉清昭應宮上尊號三首』의 <送神眞安> 등을 비롯, 『尙書』의 변증에 인용한 경우도 있고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書類, 尙書稗疏 卷四上 및 陳氏尙書詳解 卷二十六, 『易』에 대한 해설 가운데 ‘澤水困’괘[䷮]의 象傳[象曰 雲上於天水 君子以飲食宴樂]에 대한 해설에도 인용된 바 있다.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易類, 兒易內儀以 卷一] 뿐만 아니라 조선조 선감제 <철변두악장>의 첫 행 첫 구로도 쓰였다. 그만큼 이 구절은 제사절차의 묘사에 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둘째 구[載徹不遲/‘철변을 더디 하지 않는다’]는 조선조 先蠶 <철변두악장>의 제4행 첫 구에도 그대로 쓰였다.⁶¹⁾

제3행 첫 구[孔惠且時]는 『시』 「소아」 <초자> 6장의 “孔惠孔時”를 따다가 변형시킨 구절이다. 즉 반복 등장하는 ‘孔’을 ‘且’로 바꾸어 음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미는 정확히 일치한다.⁶²⁾ <초자>는 제사에서 신을 섬기고 복 받는 절차를 지극하게 말하여 상제함을 다하는 내용의 노래로, 그 취지는 선왕들이 백성을 위해 힘쓰기를 극진히 하면 신에게 致力함이 상제함을 미루어 밝힌 데 있다.⁶³⁾ 원래 <초자>는 제사와 관련된 풍자의 시였으나, 『풍운뇌우악장』에는 ‘제사가 은혜롭고 때에 맞았다’는 표층적인 의미로만 수용되었다.⁶⁴⁾ 둘째 구[神具醉飽]는 祝文·碑文 등에 두루 쓰여 온 구절이다. 예컨대 韓愈의 「南海神廟碑」 중 “제물은 기름지고 술은 향기로우며/술그릇과 술잔은 정결하고/의식에 법도가 있으니/신도 모두 취토록 마시고 배불리 드시는 듯 하였다[…牲肥酒香/罇爵淨潔/降登有數/神具醉飽…]”⁶⁵⁾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의 느낌을 한 마디로 표현한 이 구절

57) 『原本集註 詩傳(全)』, 219쪽.

58) 운자를 맞추기에 따라서는 ‘籩豆有踐’으로 쓰기도 함.

59) 『原本集註 詩傳(全)』, 202쪽.

60) 조규익, 「조선조 先蠶樂章 연구」, 240쪽.

61) 물론 시기적으로 「선감악장」이 먼저였는지 「풍운뇌우악장」이 먼저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두 제의의 시기적 선후가 밝혀져야 그 구절의 ‘원천-차용’의 관계가 분명해질 것이다.

62) 조선조 풍운뇌우 <철변두악장> 뿐 아니라 기존의 문헌들의 경우에도 ‘孔惠且時’는 등장한다. 『文淵閣四庫全書』, 集部, 總集類, 明文衡 卷六十四의 “…由公我哺 不札不瘥 由公我祛 公之於葵 孔惠且時 匪是我私…”참조.

63) 『原本集註 詩傳(全)』, 330쪽의 “呂氏曰 楚茨極言祭祀所以事神受福之節 致詳致備 所以推明先王致力於民者盡則致力於神者詳 觀其威儀之盛 物品之豐 所以交神明 逮群下 至於受福無疆者 非德盛政修 何以致之” 참조.

64) 조규익, 「조선조 先蠶樂章 연구」, 234쪽.

65) 『文淵閣四庫全書』, 集部, 別集類, 漢至五代, 別本韓文考異, 卷三十一.

이야말로 <철변두악장>에 다시 끌어다 쓸 만큼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 「소아」 <초자>의 5장에 나오는 “神具醉止” 또한 “神具醉飽”의 원천적 표현일 수 있다. <초자> 5장의 해당 부분[神具醉止/皇尸載起/鼓鍾送尸/神保聿歸]은 의미의 측면에서 신이 제물을 흠향하고 돌아가는 장면이고, 그 가운데 핵심이 ‘神具醉止’다. 따라서 역대의 제문이나 비문에서 <초자> 5장의 “神具醉止”를 수용·변이시켜 “神具醉飽”를 만든 것이고, 조선의 풍운너우 <철변두악장>에서는 “神具醉飽”를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행의 첫 구[如期如式]는 『시』 「소아」 <초자> 4장의 후반[卜爾百福/如幾如式/既齊既稷/既匡既勅/永錫爾極/時萬時億]에 나오는 ‘如幾如式’을 수용한 것인데, 앞서 언급한 풍운너우 <초헌성황악장>의 경우도 이미 이 부분의 ‘既齊既稷’을 수용한 바 있다.⁶⁶⁾ 이처럼 <초헌성황악장> 및 <철변두악장> 등 두 개의 악장이 <초자>의 시귀를 수용한 점은 풍운너우 악장의 담당자들이 『시』를 핵심 텍스트로 삼고 있었다는 점과 『시』 가운데서도 <초자>의 내용을 악장의 핵심내용으로 수용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사에 신을 섬기고 복을 받는 절차’를 지극히 말하여 상세함과 구비함을 다했다는 것, 선왕들이 백성들에게 힘쓰기를 극진히 하면 신에게 致力함이 상세함을 미루어 밝혔다는 것, 그 威儀의 성함과 물품의 풍부함을 보 건대 신명을 사귀고 아랫사람들에게 미쳐 복을 받음이 끝없음에 이르렀으니, 덕이 성하고 정사가 닦여지지 않았다면 이를 수 없는 일이라는 것⁶⁷⁾ 등 <초자>는 『시』 가운데 제사의 절차와 제사를 둘러싼 인간 및 신의 관계, 지배자와 백성들의 관계 등을 상세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둘째 구[維我純嘏]는 『시』 「소아」 <賓之初筵> 2장의 “錫爾純嘏[네게 큰 복을 내려주니]”의 의미적 핵심을 수용한 구절이다. <빈지초연>에서 이 구절을 포함한 중심 부분은 “百禮既至/有壬有林/錫爾純嘏/子孫其湛/其湛曰樂”이다. 백 가지 예의가 지극하고 성하니 신령이 큰 복을 내려 주어 자손들이 편안하다고 했다. 제사에서 술 마시는 자들이 보여주는 예의의 성함을 드러낸 노래가 바로 이 경우다. 이것이 풍운너우의 <철변두악장>에 와서는 ‘순수한 복을 내려달라’는 기원으로 바뀌었다. 이 구절을 통해 풍운너우, 산천, 성황 등의 신들에게 제사를 마치고 강복해주기를 기원한 것이다.

IV. 변계량 원작의 變改 문제

「풍운너우악장」이 변계량의 창작임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조선조 악장의 開祖는 정도전이고, 정도전의 아이디어는 조선 건국 이후 39세에 예문관 직제학이 된 이래 20여 년간 文柄을 잡고 조정의 辭命을 떠맡았던 변계량에 의해 수용·開花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⁶⁸⁾ 그의 『春亭集』⁶⁹⁾에는 9題 23篇의 악장들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山川壇祭樂章」(5수)[風雲雷雨之神·國內山川之神·城隍之神·迎神·送神]과 「先蠶祭樂章」(7수)은 조선조의 대표적 아악악장들이다.⁷⁰⁾

66) 물론 ‘如期如式’처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구들이 중국의 각종 산문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文淵閣四庫全書』, 史部, 地理類, 都會郡縣之屬, 江西通志, 卷一百十八/史部, 地理類, 河渠之屬, 吳中水利全書, 卷十四 및 三吳水考, 卷十一 등 참조]

67) 주63) 참조.

68) 조규익, 앞의 책, 454~476쪽 참조.

69)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8』, 민족문화추진회, 1990, 68~69쪽.

70) 本集에 「紫殿曲」3수[〈獻壽〉·〈警戒之辭〉·〈君臣之義〉], 「山川壇祭樂章」5수, 「先蠶祭樂章」7수[〈王后入壇無射宮〉·〈迎神九成黃鐘宮〉·〈王后盥洗無射宮〉·〈王后升壇夾鐘宮〉·〈王后入小次無射宮〉·〈初獻盥洗無射宮〉·〈初獻升壇夾鐘宮〉] 등 3제 15편의 악장이, 續集에 「獻壽樂章」2편[〈初筵〉·〈罷宴〉], 「上尊號樂章」2편[〈上上王〉·〈上大妃〉], 「荷皇恩曲」, 「賀聖明歌」, 「宴享歌」, 「華山曲」 등 6제 8편의 악장이 각각 실려 있다.

변계량은 특히 제사의례에 관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로서 가뭄 등 天災의 극복을 위해 天祭, 혹은 山川壇祭 등을 국가제사로 제도화 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유교의 지배이념에 충실하면서도 각종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하늘에 제사해야 한다’는 상소,⁷¹⁾ ‘霧祀에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는 주장,⁷²⁾ ‘인간과 감응하는 귀신의 이치’를 왕에게 설명한 일,⁷³⁾ ‘사직단의 신위를 고쳐 만드는 사업’을 주도한 일,⁷⁴⁾ ‘산천신 등의 祀典을 부활시키게 하고 나랏일 가운데 큰 일이 제사임을 설득한 일’⁷⁵⁾ 등 국가제사에 관한 논의의 핵심에는 항상 변계량이 있었고, 언제나 제사를 긍정적으로 보아 적극 추진하는 편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이 일 외에도 변계량은 축문이나 제문을 짓거나 고치고, 악장을 독점적으로 제작하던 인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선잠제악장」과 「풍운뇌우악장」 등 아악악장들을 남긴 점으로 미루어, 문선왕·사직·선농 등의 아악악장들도 그가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⁷⁶⁾

『춘정집』의 「산천단제악장」은 ‘<풍운뇌우지신>-<국내산천지신>-<성황지신>-<영신>-<송신>’의 순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전폐-초헌[풍운뇌우-산천-성황]-철변두’⁷⁷⁾로 순서와 악장의 내용이 동일한 『국조오례의』의 「길례/아부악장」 및 『악학궤범』[時用雅部祭樂/天神 風雲雷雨]과는 다르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춘정집』	영신	풍운뇌우지신	국내산천지신	성황지신	송신
『국조오례의』/『악학궤범』	전폐	〃	〃	〃	철변두

대응되는 악장들의 어구들을 비교한 결과, 영신[전폐] 2행의 둘째 구와 4행 전체 등 세 군데의 내용만 바뀌었는데, 그 차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춘정집』 / 迎神	酒旨椒馨	神之格思	儼乎在傍
『국조오례의』·『악학궤범』 / 奠幣	黍稷其馨	惟恭奉幣	神其降康

이러한 두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변계량이 지어올린 악장들의 순서를 편성하면서 영신을 전폐로, 송신을 철변두로 바꾸었으며,⁷⁸⁾ 내용 또한 세 군데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때 시작하여 성종 5년[1474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국조오례의』 편찬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나, 결국 申叔舟와 鄭陟 등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감안하면, 악장 내용의 수정 또한 이 두 사람 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儼乎在傍’ 대신 들어간 ‘神其降康’은 이미 <전폐악장>에도 쓰였는데, 같은 제례의 악장에 동일한 구절이 중복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改定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71) 태종 16년 6월 1일/태종 17년 12월 4일/세종 1년 6월 7일.

72) 태종 17년 윤 5월 5일.

73) 태종 18년 3월 4일.

74) 세종 9년 9월 4일.

75) 세종 10년 윤 4월 18일.

76) 이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논하고자 한다.

77) 이 경우에도 아헌과 송신의 순서가 있긴 하나 악장은 없다.

78) 박현숙은 “등가악과 현가악의 교주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영신> 악장을 수정하여 <전폐례> 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의 논문, 157쪽]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리라 본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자리로 미룬다.

『酒旨椒馨』은 『詩』 「소아」 <魚麗>의 1~3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酒旨且多’의 ‘酒旨’와 『시』 「주송」 <載芣>에 등장하는 ‘有椒其馨’의 ‘椒馨’을 합친 구절이다. 즉 “군자에게 술이 있으니/맛있고 또 많도다[君子有酒/旨且多]”⁷⁹⁾라는 이 구절의 구체적인 취지는 ‘燕饗’에 통용하던 악가로서 연향에 올리는 음식을 가지고 그 아름답고 많음을 지극히 말하여 주인의 예의가 부지런하여 손님을 우대함을 나타낸’⁸⁰⁾데 있다. 또한 “산초가 향기로우니/호고의 편안함이로다[有椒其馨/胡考之寧]”⁸¹⁾라는 구절들의 이면적인 뜻은 “이것으로 빈객을 연향하면 나라가 영광스럽고, 이것으로 기로를 공양하면 호고가 편안하다”⁸²⁾는 데 있다. 따라서 두 전거들 모두 손님을 접대하는 잔치자리의 모습을 그려낸 표현들이다. 그러니 잔치의 노래인 이 구절을 제사악장으로 쓰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 부분을 제사악장의 ‘黍稷其馨’으로 대체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神之格思’는 『시』 「대아」 <抑>의 7장에 나오는 “신령의 이르름은/헤아릴 수가 없거늘/하물며 신령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神之格思/不可度思/矧可射思]”⁸³⁾의 한 구절로서, 祭次를 ‘영신’으로 할 경우 적합한 뜻이다. 따라서 ‘영신’을 ‘전폐’로 고친 이상 의미적 측면에서 ‘惟恭奉幣[공손히 폐백을 받드니]’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마지막 부분에서 ‘儼乎在傍’을 ‘神之降康’으로 바꿨는데, 앞의 구를 ‘惟恭奉幣’로 바꾼 이상 그 다음 구를 ‘儼乎在傍’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즉 ‘공손히 폐백을 받드오니’ ‘신령은 강녕을 내리소서’라는 기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풍운뇌우악장」은 변계량이 지은 아악악장이다. 그는 시종일관 각종 고전들로부터 摘句해 오기도 하고, 선행 악장들의 모티프를 차용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창작하는 등 아악악장 제작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가 지은 것으로 밝혀진 아악악장은 「풍운뇌우」와 「선잠」 등에 불과하나 조사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아악악장들도 그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⁸⁴⁾ 그는 정도전 이후 조선조의 예악 확립시기에 악장을 주도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풍운뇌우악장」을, 텍스트 구성의 방식과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조의 국가제례 중 嶽海瀆·先農·先蠶·雩祀·文宣王·歷代 始祖의 제사 등과 함께 吉禮의 中祀에 속했던 풍운뇌우는 명나라 『洪武禮制』의 규정에 따라 山川 및 城隍과 함께 합사되었다. 「풍운뇌우악장」에 <풍운뇌우악장>·<산천악장>·<성황악장>이 함께 묶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바람·구름·우레·비 등 기상의 요인들은 마을마다 존재하던 성황신과 함께 산천단에 배향되어 큰 규모로 致祭되었는데, 그것들 모두가 백성들의 安危나 풍요에 중요한

79) 『原本集註 詩傳(全)』, 231쪽.

80) 같은 책, 232쪽의 “此燕饗通用之樂歌 卽燕饗所薦之羞 而極道其美且多 見主人禮意之勤以優賓也” 참조.

81) 같은 책, 508쪽.

82) 같은 책, 같은 곳의 “以燕享賓客 則邦家之所以光也 以供養耆老 則胡考之所以安也” 참조.

83) 같은 책, 444쪽.

84) 『춘정집』에 실린 「풍운뇌우악장」은 『악학궤범』과 『국조오례의』에 실린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조선조의 「풍운뇌우악장」은 변계량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잠악장」의 경우는 『춘정집』의 그것과 다른 두 문헌들의 그것이 완벽하게 다르다. 따라서 현재의 문헌 상황으로 보아 조선조 「선잠악장」의 작자는 변계량이 아니다. 그렇다면 변계량은 어떤 연유로 「선잠악장」을 지어 자신의 문집에 남겨 두었으며, 조선조는 어떤 연유로 변계량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악장을 「선잠악장」으로 지정했는지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다른 자리로 미룬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雨順風調는 곡식의 생장과 결실에 절대적인 조건이었고, 곡식의 충실한 생장은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백성들은 식량을 하늘로 여겼고, 왕도정치를 행하고자 하던 임금도 백성을 하늘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사실 풍운뇌우의 신과 산천신, 성황신 등에 대한 제사는 유교이념 사회에서 淫祀로 치부될 가능성이 컸던 민간 신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국가의 제례로 흡수하여 제도화 시키고 중앙에서 관장하려 한 것은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구현함과 동시에 민심을 국가의 발전에 동참시키고자 한 왕조의 철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런 생각을 담으려 했던 「풍운뇌우악장」은 여타 아악악장들과 마찬가지로 고전들로부터 의미 있는 구절들을 따다가 모아놓는 수준의 제작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자는 당대의 文衡으로서 국가 제의 관련 논의의 핵심에 위치하던 변계량이었지만, 아악악장 제작의 관행이나 관습에 매여 악장의 상투성을 심화시키는 한계를 보여주고 말았다. 「풍운뇌우악장」의 전거들과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장명	행	구	典據	내용
奠幣樂章	1	1	∅	도성의 남쪽에 제단이 있음
		2	詩	제사절차가 매우 분명함
	2	1	禮記	조두를 이미 늘어놓았음
		2	書	서직이 향기로움
	3	1	詩	풍류를 갖추어 연주함
		2	詩	경쇠와 피리소리가 아름다움
	4	1	書	공손히 폐백을 받들
		2	宋史/元史/明集禮/五禮通考	신령께 降福을 기원함
初獻風雲雷雨樂章	1	1	易	하늘은 베풀고 땅은 이어받음
		2	易	만물이 생겨났음
	2	1	∅	풍운과 뇌우의 힘을 빌음
		2	易	만물이 형체를 이룸
	3	1	孟子	그 때를 잃지 않음
		2	書	우리 백성에게 혜택 주시길 기원함
	4	1	詩	제향을 드림
		2	∅	복록이 이르게 하시길 기원함
初獻山川樂章	1	1	∅	산이 높음
		2	∅	나라의 鎮守가 됨
	2	1	∅	강물이 가득함
		2	∅	나라의 기틀이 됨
	3	1	∅	상서를 만들고 내리심
		2	詩	저를 도우시되 큰 복으로써 하심
	4	1	∅	성대하게 내려오심
		2	春秋左傳	밝은 제사를 흠향하시길 기원함
初獻城隍樂章	1	1	∅	우리의 성황님
		2	∅	나라를 품에 안으셨음
	2	1	∅	제사를 올림
		2	詩	제사를 바르고 신속하게 올림
	3	1	宋史/元史/明集禮/五禮通考	신령께 降福을 기원함

		2	詩	우리를 장수하고 좋게 해주시길 기원함
	4	1	詩	나라가 면면하게 이어짐
		2	易五贊	억만년에 이르게 해주길 기원함
徹籩豆樂章	1	1	조선조 先蠶전폐악장	예의가 이미 갖추어졌음
		2	詩	모두가 마땅치 않음이 없음
	2	1	詩	변두를 진설함
		2	조선조 선잠철변두악장	곧 철변을 더디 하지 않음
	3	1	詩	제사를 매우 공손히 하고 또 제 때에 올림
		2	詩	신령이 모두 취하고 배불렀음
	4	1	詩	기약한 때에 맞추어 법식대로 함
		2	詩	신령에게 降福을 기원함

제사절차를 갖추고 신령에게 降福을 기원한 것이 <전폐악장>이고, 풍운너우의 덕을 찬양하고 강복을 기원한 것이 <초헌풍운너우악장>이며, 산천의 덕을 찬양하고 강복을 기원한 것이 <초헌산천악장>이다. 또한 성황신의 덕을 찬양하고 임금의 수복과 왕조영속을 기원한 것이 <초헌성황악장>이고, 예의를 갖추어 제사를 마치고 강복을 기원한 것이 <철변두악장>이다. 원래 변계량이 제작한 이 악장들은 그 후 祭次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면서 순서와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변계량이 구절들의 대부분을 각종 고전으로부터 摘句해왔고, 부분적으로는 선행 악장들의 모티프를 차용하거나 창안을 보태어 작품을 이루어냈는데, 이것이 당대 아악악장들을 제작하던 관행이기도 했다. 변계량은 「풍운너우악장」과 함께 조선조의 공식 「선잠악장」과는 다른 별도의 「선잠악장」을 남겼는데, 제작방법이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여타 아악악장들의 작자도 변계량일 가능성이 농후하나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이 점과 함께 그가 지은 각종 향악악장들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자료

- 『國朝五禮儀(4)』, 법제처, 1982.
 김석진, 『周易傳義大全譯解』(上/下), 대유학당, 2000.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8』, 민족문화추진회, 1990.
 『禮記集說大全』, 학민문화사 영인본.
 『原本備旨 書傳集註』, 朝鮮圖書株式會社 藏板.
 『原本影印 韓國古典叢書(復元版) II. 시가류 樂學軌範』, 대제각, 1973.
 『原本集註 詩傳(全)』, 명문당, 1978.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欽定 四庫全書』,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논저

- 김석진, 『周易傳義大全譯解(下)』, 대유학당, 2000.
 김해영,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 집문당, 2003.

- 박현숙, 「유교식 제례의 종교적 특성과 <풍운뢰우악장> 연구」, 『문학과 종교』 제 16권 1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1.
- 송지원 외,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 송혜진, 『韓國 雅樂史 研究』, 민속원, 2000.
- 이옥, 『조선시대의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10.
- 조규익, 『조선조 악장의 문예미학』, 민속원, 2005.
- 조규익, 「조선조 社稷樂章의 성격과 의미」, 『語文研究』 제39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202쪽.
- 조규익, 「조선조 先蠶樂章 연구」, 『韓國詩歌研究』 32, 한국시가학회, 2012, 241쪽.
- 조규익, 「先農祭儀 악장의 텍스트 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160, 국어국문학회, 2012, 336~337쪽.
- 한영주 외,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abstract

A Study on *Poong'un'roi'oo Akjang*

Cho, Kyu-Ick

From traditional ear, factors of weather like wind, cloud, thunder, and rain have been performed enshrinement in *Sancheondan* on a large scale with the God of village shrine, those had an important meaning in people's comfort and safety or richness. Favorable weather was an absolute condition, grain's enough growth was connected directly with people's life. Therefore, people thought grain as their Heaven, King who wished to do the rule of virtue thought people as his Heaven. As a matter of fact, the rite for the God of *Poong'un'roi'oo*, God of *Sancheon*, God of village shrine was a popular belief which was possible to be pointed out as a rite for vicious God in the Confucian society. Nevertheless, the measure that they absorbed them as ceremonies of national rites and took charge of them in central government is related with the dynasty's philosophy that they wanted to establish a system of power centralization, at the same time, let the people's mind concentrate to national development. We can make ascertain *Poong'un'roi'oo akjang* not getting out of tradition making *akjang* with the level capturing the phrases from old books like the other *a-ak akjangs*. *Byeon, Gye-Ryang*, the maker of *Poong'un'roi'oo Akjang* kept a key position in the discussion about the ceremonies of national rites as the greatest civil service, nevertheless, he simply widened *akjang's* conventionality. He made *Jeonpye akjang* for praising the virtue of *Poong'un'roi'oo* and praying benediction, *Choheonsancheon akjang* for praising the virtue of mountains and streams, and praying benediction, *Choheonseonghwang akjang* for praising the virtue of village shrine's God and praying benediction, *Cheolbyeondoo akjang* for praying benediction after performing enshrinement politely.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order and contents right after revising or shifting the processes of enshrinement in the *akjang* works made by *Byeon, Gye-Ryang*. He composed the *akjang* works with assembling the phrases from the old books, or motifs borrowed from the other *akjangs* ahead, or created by himself. It is a convention making *a-ak akjang* at that time. He composed *Seonjam akjang* with the *Poong'un'roi'oo akjang*, it is very possible that he made **Seonjam akjang**, guessing

the similar technique, we can not conclude hastily yet.

Key Words : *Poong'un'roi'oo*, God of *Sancheon*, God of village shrine, *Byeon, Gye-Ryang*, *Poong'un'roi'oo akjang*, *A-ak akjang*, *Jeonpye akjang*, *Cheolbyeondoo akjang*